

국민통합민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발기취지문

우리는 오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새로운 여정의 출발을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는 추락하고 정치는 불법이 판을 치며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서민들은 고단한 삶에 지쳐 있고, 정치인들은 국민을 외면하고 정쟁에 빠져 이권투구를 일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국민은 정치가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정치권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그들의 권력 유지와 이권에 매몰되어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방탄막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국민이 앞서서 변화시켜야 합니다.

한국인은 위대합니다. 짧은 시간에 산업화를 통해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민주화 운동을 통해 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한류드라마, 케이팝을 유행시키며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렸습니다. 우리의 눈부신 성장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끈 어르신들의 지혜와 젊은이들의 뛰어난 감각과 스마트함은 무한한 잠재력이 되어 또 다른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저성장, 청년일자리와 비정규직 문제, 보육과 교육 등 사회적 격차를 둘러싼 중요한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인구감소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경제활동과 성장을 위축시킵니다.

출산대책마련에 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르신 문제에 있어서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OECD국가 중 노인의 빈곤율, 자살율이 1위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가 고령화 정책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국가의 위태로워집니다. 서민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다양성은 혁신의 기본입니다. 거대 양당구조의 대한민국의 정치는 혁신을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특권의식에 빠져 불법과 부조리가 판치는 정치권에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세력들이 뭉쳐서 다당제 의 정치구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다당제구조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치혁신을 이끌어내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여의도 정치를 종식시키고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정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국민통합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유능하고 깨끗한 정치세력이 되겠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024년 2월 28일

발기인일동

2024년 02월 28일

국민통합민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